

#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 4 個國 巡訪結果 分析

- 南 · 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1992. 1. 17

吉 埈 宇 (國際研究室 研究委員)

民族統一研究院

## 目 次

1. 부시 美國大統領 아시아 巡訪의 背景 및 結果	3
가. 背景	3
나. 巡訪結果	4
다. 巡訪結果에 대한 美國內 反應	10
2. 訪韓의 意味 및 具體的 結果	11
가. 軍事·安保 分野	12
나. 經濟·通商 分野	14
3. 韓·美·北韓關係의 展望 및 問題點	17
가. 美國의 新亞·太戰略 構想과 韓半島 安保	17
나. 美國의 對北韓關係 進展과 韓·美關係	18
다. 實質的인 南·北韓 交叉承認 可能性 增大	20
<附錄> 부시 美國大統領 아시아 巡訪日程 및 主要 論議內容	

빈 면

## 1. 부시 美國大統領 아시아 巡訪의 背景 및 結果

부시 美大統領은 1991년 12월 31일부터 1992년 1월 10일까지 濠洲, 싱가포르, 韓國 및 日本을 차례로 방문하였는 바, 금번 巡訪의 背景 및 結果는 다음과 같음.

### 가. 背景

- 작년 11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던 부시 美大統領의 아시아 巡訪計劃은 美國內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民主黨으로부터의 정치적 공세와 대통령의 인기하락 등 국내적인 이유로 延期된 바 있었음. 당시 계획된 巡訪의 주된 目的이 脫冷戰時代의 새로운 國際秩序 再編過程에서 日本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전통적 友邦國들과의 協力體制 構築이었다면, 금번 訪問은 次期 대통령선거를 고려하여 다분히 美國內 政治·經濟的 與件 改善을 염두에 두고 계획되었음.
- 아울러 작년초 걸프戰 이후 美國의 對外政策이 中東 평화회담, 蘇聯聯邦 解體와 새로운 獨立國家聯合 대두과정에서의 美國의 대처에 重點이 두어지는 한편, 태평양지역에서의 美國의 군사력 감축계획 등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美國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低下되고 있다는 域內同盟國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地

域安保體制的 均衡者로서의 立地를 재확인하고자 함.

- 經濟·通商면에서 美國內 고용증대와 성장회복을 도모 하므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1992년말 대통령선거 준비 과정에서 政治的 壓迫要因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對美 무역흑자국인 日本을 포함한 주요 무역대상국의 市場開放을 요구, 兩者間 通商關係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함. 아울러 美國은 資本主義 經濟秩序 再編過程에서 유럽공동체(EC) 諸國들과의 軋轢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 多者間 貿易協商의 성공적 타결을 위하여 巡訪國들의 적극적 참여와 美國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고자 함.

## 나. 巡訪結果

### (1) 政治·軍事·安保 分野

- 巡訪國 가운데 첫 기착지인 濠洲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부시 美大統領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美國의 傳統的인 安保公約을 재천명하고, 濠洲와의 ANZUS同盟을 根幹으로 南太平洋地域에서의 확고한 安保協力體制를 재확인함.
- 새로운 國際秩序 再編過程에서 美國은 아시아安保體制 構想 실현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美·日 安保協力體

制와 日本의 역할 증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對韓 防衛 公約의 재확인을 통해 雙務的 安保協力關係를 공고히 함.

- 冷戰體制 붕괴후 범세계적 차원에서 美·日關係를 규정한 「도쿄선언」(Tokyo Declaration: 1992.1.9) 채택을 통해 美·日關係를 同伴者關係(global partnership)로 천명하고, 經濟 및 安保政策 전반에 관한 상호협력 필요성을 강조
  - 美國은 아시아 地域安保戰略의 핵심고리인 日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그 구체적 事案으로서 日本의 駐日美軍 체재경비 부담확대에 합의
  - 域內에서 美國의 전통적인 軍事 및 經濟的 役割에 대한 日本의 기여에 따라 美·日 양국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될 가능성 제시
  - 러시아연방 보유 北方領土의 日本 返還에 美國의 적극 지원을 재차 표명
- 美國의 전통적 前進防衛戰略의 조정 및 새로운 亞·太 軍事戰略 추진의 일환으로 필리핀의 수빅灣 美해군기지 철수와 클라크 美공군기지 폐쇄조치에 따른 싱가포르

- 르를 비롯한 東南아시아 우방국가들(말레이시아, 泰國)의 基地施設 이용권(basing-rights agreement) 확보를 도모함.
- 대규모 군사력을 海外基地에 고정배치하는 대신, 平時에는 機動性 爲主의 소규모 병력을 海外에 駐屯시키고, 분쟁발생시 本國으로부터 대규모의 증원군을 파견하여 긴급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該當 地域內 基地施設 이용권 확보
  - 1992년 1월 4일 吳作棟 싱가포르總理와의 회담에서 기존의 기지시설협약을 확대 발전시켜 美제7함대의 병참사령부(Command Task Force)와 제7함대의 核心인 제73항공모함 기동부대 사령부를 싱가포르로 移轉·配置하는데 원칙적 합의
  - 同 合意를 통해 東印度洋에서 선박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순시비행단의 발진기지 확보와 美海·空軍의 선박과 항공기 수선 및 병참지원 보장. 이에 대한 대가로 美國은 싱가포르軍의 훈련계획지원 확대를 약속
- 필리핀의 海·空軍基地로부터의 철수 이후 美國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地域安保網(구암·日本·韓國·알래스카·하와이 및 東南아시아諸國) 재편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基盤을 마련함.

## (2) 經濟·通商 分野

- 美國과 아시아·태평양 地域國家들간의 교역량 급증 (1991年度 3,100억달러, 對유럽諸國 교역량은 2,200억 달러) 상황에서 급성장을 보이는 域內 國家들과의 兩者間 協力을 추구함.
  - 兩者間 交易에서의 균형유지가 美國의 고용창출과 경기회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을 강조, 주요 무역 상대국의 市場開放 요구
  - 域內 國家들중 自由貿易主義를 가장 충실히 실행하 면서 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濠洲는 巡訪 4個 國중 유일하게 지속적인 對美 무역적자(1991年度 濠洲의 對美交易 40억달러 적자)를 기록해 온 국 가인 바, 美國의 수출진흥정책(Export Enhancement Program)에 따른 밀을 포함한 농산물에 대 한 30%의 정부보조금(濠洲는 11%)으로 야기되는 濠洲農民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美國의 노력을 추구. 美國은 亞·太經濟協力閣僚會議(APEC)의 창 설 주도국으로서 濠洲의 域內 자유무역관행 정착에 先導的 役割 기대



- 第3世界國家들 가운데 自由貿易原則을 성실히 이행하는 싱가포르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美國企業의 싱가포르 투자보장장치로서 兩國間 投資協定에 기본적 합의(1991.10.11 兩國은 貿易 및 投資協定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調印을 통해 향후 兩國間 自由貿易協定으로의 발전 기반 마련)
- 相互主義에 입각한 韓國의 公正貿易慣行 실천, 非關稅障壁 철폐, 금융시장을 포함한 서비스산업분야 市場開放計劃의 조속하고 성실한 이행 강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通商協力 常設窓□로서 經濟協議體 구성 합의
- 작년도 美國 무역적자 660억달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日本(410억달러 對美 무역흑자)을 상대로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日本市場 개방 확대, 쌀市場 개방안의 수용, 환율·금리·재정지출 조정 등을 포함한 巨視政策調整을 촉구
- 日本의 시장개방안을 담은 「行動計劃」(Action Plan)을 통해 구체적인 시장개방계획 발표
  - 日本은 美國產 자동차 수입을 연간 추가로 2만

대 수입 (1991年度, 3만 5천대 수입), 자동차부품 현지구매량을 1994년에 190억달러까지로 확대(1991年度, 70억달러)

- 종이폐품, 판유리, 컴퓨터, 반도체, 금융시장개방과 構造調整問題 논의(SII: Strategic Impediments Initiative) 활성화
- 우루과이라운드 多者間 貿易協商에서 美國의 입장지지 확보 및 美國과의 공동보조 필요성을 강조함.
  -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던켈 가트(GATT) 사무총장의 포괄협상안을 지지(1992.1. 6. 訪韓時 국회연설)하고, 우방국들의 同參을 촉구
  - 순방국들의 주요 관심사항이며 던켈案의 논란부분인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 조항과 관련, 농산물 주요 수출국인 濠洲는 보다 큰 폭의 보조금 삭감 요구의사를 표명한 반면, 韓國은 쌀시장의 전면개방 불가원칙에 의거하여 던켈案에 대한 거부 의사를 전달. 그러나 韓國은 여타분야에서 美國 입장을 지지
  - 日本은 美·日間 합의된 「行動計劃」에 던켈案 활성화 의지를 포함시키므로써 「예외없는 관세화」 조항

에는 반대하지만, 던켈案을 기초로 계속 협상해 나갈 의사를 표명

#### 다. 巡訪結果에 대한 美國內 反應

- 國內經濟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主要 交易相對國에 대한 市場開放 촉구의 成果가 미흡함.
  - 對日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결여
  - 巡訪에 수행하였던 主要 企業人들, 言論 및 經濟關係者들은 관심분야별 구체적 합의 내용에 따라 지지와 불만의 정도가 다양
- 國內 經濟問題를 主要因으로 하여 부시대통령의 인기가 급속히 하락됨.
  - 부시대통령의 전반적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지지율이 在任期間中 최저인 46% 기록(유·에스·에이 투데이紙, CNN 방송, 갤럽 공동실시 輿論調查, 걸프戰 승리 직후 89%의 지지율과 대조)
- 1991年 11月로 예정된 巡訪의 주된 목적이었던 새로운 세계질서속에서의 同盟國들과의 協力體制 構築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퇴색됨.

- 經濟的 成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外交·安保面에서의 성과를 부각시킬 기회도 상실
- 訪日中 부각된 부시대통령의 건강상의 문제점은 금년도 대통령선거전에서 부시의 再選에 惡材로 작용할 소지를 제공함.
- 民主黨의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부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再選된 부시대통령의 有故時 대통령직을 부통령의 資質問題에 대한 논란 가능성 부여

## 2. 訪韓의 意味 및 具體的 結果

부시 美大統領의 아시아 4개국 巡訪과 관련, 다양한 雙務的 利害關係에 따라 부각되는 問題點으로 인하여 訪問成果도 各國의 경우 다르게 나타남. 韓國訪問의 경우 軍事·安保面에서 기존의 방위공약 불변을 강조하는 한편, 經濟·通商面에서 표면상으로는 總論的 原則論에 입각한 公正한 自由貿易主義를 내세우면서 실무적으로는 可視的인 성과를 추구하였음.

## 가. 軍事·安保 分野

### (1) 對韓 安保公約 遵守 再確認

- 脫冷戰의 시대적 조류에도 불구하고, 地域紛爭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韓半島의 상황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韓·美 安保協力이 韓半島의 平和와 地域安保의 근간이 된다는 美國의 전략구상을 재확인함.
- 작년말 급진전을 보인 南·北韓關係에 대한 美國의 긍정적 평가와 남북대화의 진전과 北韓側의 남북간 合意書의 이행과정에서 美國이 취하게 될 對北韓政策의 基本方針을 천명함.
- 韓半島 安保를 위하여 韓國國民이 원하는 한, 駐韓美軍의 계속 駐屯을 천명함.
  - 北韓은 1992년 1월 7일 北韓 관영 중앙통신에서 駐韓美軍 존속과 관련한 부시 美大統領의 언급과 관련, 韓國으로 하여금 北韓을 침공, 흡수·통일하도록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
- 北韓의 국제원자력기구 의무사항 준수 및 核査察 수용 意思表明 등 北韓의 긍정적 태도변화에 대한 판단을 前提로 금년도 팀스피리트 韓·美 合同軍事訓練 취소

가능성을 시사(1992.1.7. 韓國國防部, 美國과의 협의하에 훈련취소 발표)함.

- 北韓은 1992년 1월 8일 祖平統 성명을 통해 올해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발표를 환영하는 한편, 이 훈련의 영구적인 중지와 다른 모든 대규모 군사훈련의 중지 요구

### (2) 韓半島 統一問題의 南·北 當事者 解決原則 確認

- 北韓의 核開發 저지와 南·北韓關係 개선에 있어 韓國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강조함.
- 그러나 北韓의 평화의지에 대한 韓·美間 인식의 차이는 상호 긴밀한 협의로 해소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됨.

### (3) 北韓의 核開發問題 共同對處

- 美國은 南·北韓間의 非核化宣言(1991.12.31)에 따른 南·北韓의 相互 核査察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함.
- 韓·美 兩國은 北韓의 核問題를 국제원자력기구의 의무 이행이라는 국제문제와 韓半島 非核化宣言의 의무 이행이라는 南·北韓間의 問題 등 두가지 차원으로 구분, 양면적인 압박을 가하는 戰略構想에 合意(1992.1.11 李相玉 외무장관과 솔로몬 美國務部 亞·太담당차관보 면

담)함.

- 北韓이 核査察을 수락하고, 核재처리공장 및 농축시설을 포기하도록 韓·美間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 하에 목표달성 의지를 천명함.

#### (4) 美·北韓關係 改善의 條件

- 美·北韓關係 改善은 南·北韓關係 改善 진전에 따라 推進될 것이며, 韓國과의 충분한 協議가 선행될 것임을 표명함.
- 北韓의 人權彈壓事例를 거론, 인권문제가 美·北韓關係 改善의 하나의 전제조건이 될 것임을 示唆함.
- 韓國은 北韓이 核武器開發을 완전히 포기하고 南·北韓 關係를 개선해 나간다면, 美國이 단계적으로 北韓과 關係改善을 추구하는데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권장할 것임을 천명함.

### 나. 經濟·通商 分野

#### (1) 相互主義에 立脚한 公正貿易慣行 促求

- 美國의 전통적인 通商 기본원칙인 自由貿易主義와 相互主義에 근거, 공정한 무역체계와 경제규모에 걸맞는

國際社會에서의 책임을 강조, 市場開放 확대를 촉구함.

- 韓·美間 무역불균형이 1991년도에 解消(1991년도 對美 무역적자 7억달러 기록)된 점을 감안, 政府當局에 대한 직접적인 開放壓力보다는 구체적 品目과 分野에서 關連업계와 政府인사가 공동으로 通商摩擦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常設協議 채널인 經濟協議會(Korea-U.S. Economic Council) 구성 운영에 합의하므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通商壓力窓口를 마련함.

- 美國側의 제의에 따라 通關, 關稅, 公債규격 및 수입규제절차 등 4개 部門에 經濟協議會 구성 합의

- 韓·美 兩國間 무역 및 경제문제 해결의 제도적 틀 마련

(2) 總論的 原則主張과 實務次元에서의 具體的 開放 要求

- 美國側은 通商分野에서 겉으로는 原論的인 開放原則을 주장함과 동시에 實務次元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함.

- 延支給 수입품목 關稅率 인하

- 金融自律化 일정 제시

- 通信市場 조기 개방



- 부가가치통신망(VAN) 외국인투자 全面 自由化
- 개방대상, 통신서비스 범위 확대
- 전용회선 사용완화

(3) 우루과이라운드 多者間 貿易協商 協調 促求 및 美國의 亞·太地域 經濟協力에 積極的 參與 闡明

- 韓國內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쌀市場 開放問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우루과이라운드의 成敗가 농산물에 대한 補助金問題와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함.
- 亞·太諸國들의 지역간 經濟協力體制인 亞·太經濟協力 閣僚會議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美國의 적극적인 참여를 시사함.

(4) 韓·美 科學技術協力協定(Science and Technology Agreement) 및 特許秘密保護協定(Patents Secrecy Agreement) 締結

- 1988年 기존의 科學技術協力協定 발표 이후 兩國間 協定不在 상태를 해소하고, 相互協力에 의해 개발된 기술의 특허권리의 소재를 명확히 하며, 첨단기술분야를 포함한 戰略的인 技術開發協力の 틀을 마련함.

- 特許秘密保護協定 체결을 통해 兩國間 군사기술 협력 강화의 기반을 확보하고 美國의 局地戰에 대한 地球的防禦計劃에 韓國參與 근거를 확보함.

### 3. 韓·美·北韓關係의 展望 및 問題點

美國은 亞·太戰略을 재조정하고 한반도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核問題에 대한 北韓의 태도에 따라 美·北韓關係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우리정부는 동북아지역 데탕트 추세 심화로 예상되는 동북아4강의 南北韓 교차승인 및 「韓半島問題의 國際化」 가능성에 대비한 다각적인 외교노력이 필요함.

#### 가. 美國의 新亞·太戰略 構想과 韓半島 安保

- 東아시아에서의 美國의 戰略이 雙務間 안보조약을 근간으로 前進配置戰略이 재조정되는 過程에서 駐韓美軍의 位相 또한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음. 더욱이 美國大統領選舉의 해인 올해 美國의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한 국방예산절감의 필요성 증대와 南·北韓關係의 진전에 따라 美國政界, 특히 美國議會의 강력한 요구로 주한미군의 減軍再開 등이 심각히 論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冷戰 이후 국제사회에서 美國과 日本이 同伴者로서 협력·협조한다는 새로운 世界戰略構想하에서 美·일간 합의된 「行動計劃」 속에 韓半島의 在來式 무기에 관한 軍備管理 권장과 北韓의 核査察 완전이행 확보 의지를 포함시키므로써 韓半島 緊張緩和에 관한 兩國間的 공동인식을 확인함.

#### 나. 美國의 對北韓關係 進展과 韓·美關係

- 美國의 對北韓 접촉창구 격상문제가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韓國政府의 原則論的인 지지입장과는 별도로, 美·北韓關係 進展이 韓國에 대한 충격(예: 駐韓美軍 2段階 撤收凍結方針 재검토)을 상쇄할 수 있는 對國民 설득노력이 요구됨.

— 美國務部 고위관리는 1992년 1월 7일 田仁燦 빈駐在 北韓 국제기구대표부 대사의 核査察 무조건 조건 발표에 따라 美·北韓間 對話 격상 시사

— 1992년 1월 22일로 예정된 美·北韓間 차관급회담 (美國 뉴욕市에서 金容淳 北韓 勞動黨 國際部長과 아놀드 캔터 美國務部 政務次官間 예정)을 통해 北韓의 核問題에 대한 美國의 공식입장 전달 예정

- 금번 美·北韓 차관급회담은 北韓의 태도에 따라 美·北韓間關係 개선에 중요한 계기
- 南·北韓 合意書에 따른 南·北韓關係의 민족내부의 특수관계 규정이 가트 등 國際交易慣例와 상충될 소지가 있는 바, 同 문제 해결과정시 美國이 적극 介入하므로써 가트 운용과정에서 韓國의 美國立場 支持를 촉구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合意書에 따른 南·北韓 교류·협력관계 진전에 따라 대두될 對北韓 기술이전문제도 中·長期的으로는 美國이 주도하는 對共產圈輸出統制委員會(COCOM)의 규제와 연계되어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음.
- 美國, 유럽선진국 및 日本 등은 동서냉전의 종결과 蘇聯邦의 소멸에 따라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체제를 종래의 「冷戰對應型」에서 「地域紛爭防止型」으로 재편 시도. 이에 따라 동유럽과 독립국가연합諸國 등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중동국가와 아시아 일부국가들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강화될 전망

#### 다. 實質的인 南·北韓 交叉承認 可能性 增大

- 日·北韓 國交正常化 논의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韓·中 國交樹立을 위한 협상의 가시화 및 美·北韓關係 改善 모색 등으로 실질적인 南·北韓 交叉承認狀況이 도래하고 있어, 南·北韓關係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짐.
- 이와 관련 南北韓간의 적극적 平和時代의 구현을 위한 주변4강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보장 등 「韓半島問題의 國際化」 추세에 대응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될 것임.

〈附錄〉 부시 美國大統領 아시아 巡訪日程 및 主要 論議內容

순방 일정 : 1991. 12. 31~1992. 1. 10			
방 문 국		군사·안보분야	경제·통상분야
호 주 1991. 12. 31~1992. 1. 3	합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태지역 미군 계속 주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의 중요성 강조</li> </ul>
	주요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럽공동체(EC)의 무역정책 평가</li> <li>미국의 수출진흥정책(EEP)에 의한 호주농민의 피해 강조</li> <li>미·호주간 농수산물 무역 불균등 시정</li> </ul>
싱가포르 1992. 1. 3~5	주요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태지역 「安全保障網」 재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캄보디아지역에 대한 교역 금지조치 해제 시사</li> </ul>
	합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리핀 수빅灣 주둔 美해군 기지 기능의 일부, 특히 美 제7함대 병참사령부와 美 제7함대의 核心인 제73항공모함 기동부대 사령부를 싱가포르로 이전·배치</li> <li>사령부 이전에 필요한 2백 명의 보급담당 해군 요원의 싱가포르 상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국간 투자협정 기본합의</li> <li>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기술지원 및 국제기구로부터의 재원확보 지원 노력 공약</li> <li>아세안제국 미국대사들의 미국 주요 도시(디트로이트 포함) 순방을 통해 (1992.3) 미국기업의 지역 투자 유도</li> </ul>
한 국 1992. 1. 5~7	주요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간 관계 변화</li> <li>미국의 대북한관계 개선</li> <li>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무역체제 및 공정무역관행의 중요성</li> <li>양국간 경제·기술협력체제</li> <li>우루과이라운드 타결문제 협력</li> </ul>
	합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간 관계개선 및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당사자 원칙</li> <li>1991.12.31 타결된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공동의 외교노력</li> <li>對한반도 방위공약 및 미군의 전진배치전략 불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 및 통신시장의 조속한 자유화</li> <li>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미국 입장 최대 협조</li> <li>분야별 무역마찰 시정을 위한 경제협의회 구성</li> <li>과학기술협정 및 비밀보호협정 체결</li> </ul>

방 문 국		군사·안보분야	경제·통상분야
	주요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스프리트 훈련 취소 및 조정</li> <li>• 미국의 대북관계 개선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의 금리차 고려 금융전반의 자율화 단계적 추진</li> <li>• 우루과이라운드타결의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쌀 등 농산물 시장의 전면개방 불가 표명</li> </ul>
일 본 1992. 1. 7~10	주요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li> <li>• 일본의 주일미군 체재경비 부담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對日輸出 확대</li> <li>•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공동보조 및 일본의 쌀시장 개방</li> </ul>
	합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전체제 붕괴후 미·일관계를 정리한 「도쿄선언」 채택</li> <li>- 미·일관계의 기반은 글로벌 파트너쉽</li> <li>- 주일미군 경비부담 확대</li> <li>- 미·일·유럽 3자대화 강화</li> <li>•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核사찰의 완전 이행 촉구</li> <li>• 남북한의 「비핵화공동선언」의 조속한 이행 강조</li> <li>• 북방영토문제 해결에 있어서 일본의 노력 지지</li> <li>• 미·일 안전보장협의의 위원회(2+2 포함)의 조기 개최</li> <li>• 조기 정보감시기능 강화의 중요성 재확인</li> <li>• 초전도 대형 입자가속기 (SSC) 공동연구작업 부회의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시장개방안을 담은 「행동계획」(Action Plan) 발표</li> <li>- 1994년까지 자동차 2만대, 부품 190억달러 수입확대</li> <li>- 아·태경제협력체(ASEAN)의 범위내에서 아시아 시장개방 촉진</li> <li>- 우루과이라운드 「던켈안」 평가 활성화</li> <li>- 종이패품, 판유리, 컴퓨터, 반도체, 금융시장 개방</li> <li>- 구조문제협의(SII) 활성화</li> <li>• 세계성장전략 공동성명</li> <li>- 성장중시형 경제정책 채택</li> <li>- 연강세·달러약세 용인</li> <li>• 50억달러의 무역보험에 의한 미국수출의 확대</li> </ul>